

‘새로운’ 무신론의 신 :
도킨스, 해리스, 데닛, 히치슨과 스텐저를 중심으로¹⁾

강상우 (목사·고구려대학 겸임교수)

논문 요약

본고는 새로운 무신론자들(New Atheists)의 주장 뒤에 존재하는 신(god)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본 연구는 상식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상식적인 대답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킨스와 새로운 무신론자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킨스의 경우 그는 진화론의 좌장(座長)적인 인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저서들을 통해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 신(god)이 있는데 그 신은 바로 ‘급진적 진화론적 과학주의 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록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신이 우상(god)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는 명칭에 있어서 이 ‘새로운(new)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새로운 무신론자들을 과거 무신론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이들 주장이 매우 극단적이며 호전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무신론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수식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극단적이며 호전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1) 오늘날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더욱 더 악화되었으며, (2) 종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더 평가절하(平價切下)되었고, (3) 더 나아가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ation)이라는 극단적 환원주의적 시각이 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본 연구자는 2003년 춘계학술대회(2013. 5. 11[토] 경북대학교) 때에 2개의 발표 논문을 신청하였다. 하나는 기독교세계관 분과의 “지적사고(I·T)에 대한 비판적 응답과 귀 기울임”이라는 제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분과의 “사회복지 이슈와 기독교세계관”이었다. “지적사고(I·T)에 대한 비판적 응답과 귀 기울임”이라는 글은 쓴 후 본 연구자의 논리가 맥그라스(Alistair McGrath)의 논리와 너무 흡사함을 보고 본 연구자는 매우 놀라움과 동시에 본 연구자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세계적 석학)이 계신다는 것에 기분이 매우 좋기도 했다. “최소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한 분이 존재하구나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이 ….” 그러나 그 논문은 그 후 발표가 취소되었다. 그 대신 사회복지 분과에서 “사회복지 이슈와 기독교세계관”라는 제목의 논문만을 발표하였다. 그때 발표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자는 “지적사고(I·T)에 대한 비판적 응답과 귀 기울임”이라는 미발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적사고가 다윈주의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창조론과 지적설계(I·D)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논외(論外)로 하고자 한다(물론 부족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차후에 글로 써보려고 한다. 실현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지적사고”(I·T,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한 무리)의 정체 즉 그들의 “신”(偶像, god)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한계”에도 밝힌 것처럼 맥그라스의 『신 없는 사람들』(2012)의 “2부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들”의 ‘4장. 종교는 비이성적이다’(McGrath, 2012: 117-148)와 ‘5장. 종교는 비과학적이다’(McGrath, 2012: 149-181)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도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I 들어가는 말

“기독교혐오증”(“Christophobia”), “미디어 기독교혐오증”(“Media Christophobia”)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오늘날 이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澎湃)해져 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인터넷을 통한 복제와 재(再)복제를 통한 다른 버전(version)으로 급속도로 대량 생산과 더불어 대량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또 이렇게 생산된 대량의 무신론적 자료는 영구 삭제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무신론적 근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피터 버거(Peter Berger)가 제시한 근사구조[Plausibility Structure, 近似構造]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양산(量産)하는 중요한 집단 중의 하나가 바로 “새로운 무신론자들”(New Atheists)이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가 지적한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무신론적 시각을 대량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McGrath, 2012: 12)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대량적으로 양산하고 이를 유통시키고 있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뒤에 있는 ‘신’(god, 偶像)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다면 그들이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대한 진술이 상식 수준의 진술에 지나지 않느냐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로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일반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신은 무슨 신’이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한 이유로 새로운 무신론자의 신이라고 하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의 한 형태로 취급할지 모른다. 그러나 피터 크리프트(Peter Kreeft, 1937-)의 말을 인용한 카일 이델만(Kyle Idelman)의 말을 곱씹으면 무신론자들에게도 신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무신론자의 신은 참 신(the God)이 아닌 하나의 우상(偶像)인 신(a god)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피터 크리프트는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숭배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신을 섬기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이다(Idelman, 2013: 80-81)
2)-3)-4)

2) 장로교 목사인 도날드 맥쿨라우(Donald McCullough)도 그의 책 『하찮아진 하나님』(The Trivialization of God)에서 “인간을 본질상 예배하는 존재이다. 인간이기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다만 예배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수많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다.”라고 했다.(Brouwer, 2001: 24 재인용).

3) 심지어 과학도 믿음에 불과하다고 한다. “폴라니는 과학이 ‘믿을 만한’(fiduciary)-‘믿음에 바탕을 둔’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신뢰에서 나온다고 결론지었다. 그와 같은 믿음은 기반이 튼실하고 근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과학이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티모시 켈러(Timothy Keller) 목사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좌우하고 우리 논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경험이라든지 배경에 깔린 믿음을 가지고 매번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지적한다(Keller, 2010: 181).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도 “인간의 본성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따라서 신전은 텅 빈 채로 있을 수 없다. 유일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Newbigin, 2005: 149)⁵⁾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위의 카일 이델만의 글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범위

무신론에 대한 자료는 가히 방대하다. 왜냐하면 유·무신론 논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역사적 과정에서 신학 분야나 철학 분야에서 때로는 과학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논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인터넷 상의 사이트(site), 블로그(blog)나 SNS를 통해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의 방대함은 연구 범위에 있어 자료에 대한 제한을 상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가 『신 없는 사람들』(Why God Won't Go Away)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새로운 무신론자로 언급한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샘 해리스(Sam Harris), 다니엘 데닛(Daniel Dennett), 그리고 고인(故人)이 된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를 중심으로 하되, 새로운 무신론자로 일컬어지고 전공이 ‘우주천문 물리학’인 빅터 스텐저(Victor J. Stenger)를 포함시키고자 한다.⁶⁾ 맥그라

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자식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이다. 폴라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해야 한다. ... 하지만 제아무리 비판적이고 독창적인 지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믿을 만한 틀 밖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Hahn, 2009: 32-33 재인용).

4) 『종교전쟁』이라는 책의 이름에서도 과학의 종교적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비록 장대익이 왜 그들의 책 제목을 『종교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만(과학의 종교성을 부인하지만) 본 연구자에게 그리 수긍되지 않는다. “『종교전쟁』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종교 간 전쟁’을 떠올린다. 이런 용법을 알면서도 우리는 고심 끝에 이 책 제목으로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대신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종교를 둘러싼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넓은 의미의 ‘종교 전쟁’안에는 ‘종교 간’의 관계를 둘러싼 전쟁, ‘종교와 인접 분야들’(신학, 예술, 문학, 철학, 사회학, 과학 등) 간의 전쟁, 그리고 ‘종교와 실천’(인권, 평화, 윤리, 환경, 여성 등)을 둘러싼 전쟁 등이 모두 포함된다.”(신재식·김윤성·장대익, 2009: 20).

5) “G. K. 체스터턴을 비롯한 종교옹호론자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주문을 설파하는 걸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네. ‘만약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believe in nothing)이 아니라 무엇이든 믿는다(believe in anything)는 것이다.’”(Hitchens, 2012: 113 재인용).

6) 참고로, 홉슨(Theo Hobson)은 “Part 1. 네 명의 무신론자에게 믿음이란”에서 Dawkins, Harris, Hitchens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그레이링(A. C. Grayling)을 다룬다. 그가 그레이링을 선택한 이유는 2007년 반종교적인 내용의 수필집 『모든 신을 등지고』(Against All Gods)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Hobson, 2013: 21-49); 앤드류(E. Andrew)는 Dennett, Dawkins, Harris, Stenger에 『믿음의 엔진』(Six Impossible Things Before Breakfast)을 쓴 루이스 월퍼트(Lewis Wolpert)를 추가한다(Andrew, 2012: 74); 그리고 플루(A. Flew)는 앤드류가 언급한 인물 중 스텐저를 생략하고 있다.(Flew, 2011: 18).

스도 우주천문 물리학자인 스텐저가 새로운 무신론자로 때로는 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McGrath, 2012: 1장 3번 주). 본고는 이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대표적 저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맥그라스는 『신 없는 사람들』의 끝 부분에서 ‘더 읽을 책’을 소개하는데 ‘새로운 무신론’의 고전적 선언에 관한 책으로 다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McGrath, 2012: 203).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London: Bantam, 2006); Daniel C. Dennett, *Breaking the Spell: Religion as a Natural Phenomenon* (New York: Viking Penguin, 2006); Sam Harris,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 (New York: W. W. Norton, 2004); Sam Harris, *Letter to a Christian Nation* (New York: Knopf, 2006); Christopher Hitchens, *God Is Not Great: How Religion Poisons Everything* (New York: Twelve, 2007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자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빅터 스텐저의 대표적 다음의 저서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Victor J. Stenger, *God: The Failed Hypothesis: How science shows that God does not exist* (Amherst, NY: Prometheus Books, 2008). 물론 맥그라스는 스텐저의 저서에 대해 양(量)은 방대하더라도 도킨스나 히친스의 사상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그 책들과 비교하면 날이 무덤 칼 같다”(McGrath, 2012: 48, 1장 3번 주)고 평가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스텐저가 다른 새로운 무신론자들과는 다른 전공자라는 점에서 본 연구 범위에 그의 저서를 포함시킨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먼저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과거 무신론자와 다르게 이들을 ‘새로운(新) 무신론자(無神論者)’라고 불리는데 대해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는 명칭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2)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서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새로운 무신론자는 명시적(明示的)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자신들에게는 종교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렇지만 이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사상 속에서 암묵적(暗黙的)으로 존재하는 신(god)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신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새로운 무신론이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상 중에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지닌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구체적인 신(god, 偶像)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새로운 무신론자가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한계

본 연구는 맥그라스의 『신 없는 사람들』의 연구의 확장(expansion)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본 연구자는 맥그라스의 『신 없는 사람들』의 “2부.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들”의

‘4장. 종교는 비이성적이다.’(McGrath, 2012: 117-148)와 ‘5장. 종교는 비과학적이다.’(McGrath, 2012: 149-181)이라는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확장하였음을 밝힌다. 굳이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라고 한다면 맥그라스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우주천문 물리학자인 스텐저(Victor J. Stenger)의 주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 범위에 있어서 약간이나마 확장을 꾀하였다는 점과 동시에 이들 자료들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작게 남아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무신론자로 불리지만 이들 각자의 전공 분야가 서로 상이함으로써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편의상 이들을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전공이 과학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렇다고 철학이나 과학 철학 또한 전공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자의 전공 분야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이다. 그것도 박사과정 수료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전문영역이 아닌 타(他)전공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밝혀야 할 것 같다[참고로 본 연구자는 학부 때는 법과대학에서 사법학(私法學, B.A.)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神學, M. Div.)을,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학(社會福祉學, M.A., Ph.D. Cand.)을 전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전공자인 연구자로서 참으로 천만다행(千萬多幸)인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들 전문 서적이 대부분 번역되어 있었다는 점이다.(이는 한편으로는 이들 저서가 종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까움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지혜로운 자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극단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어느 정도 염려와 더불어 마음에 위안이 된 것도 사실임을 밝힌다.)

II 새로운 무신론자(New Atheist, 新無神論者)

1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특성

1) ‘새로운’(new, 新)이 지닌 호전성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표현은 그레이 울프(Gary Wolf)가 만들었다고 한다. “울프는 도킨스와 해리스, 데닛의 방법-무신론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그리고 종교적 신념과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적 풍토 모두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지칭하기 위해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냈다.”(McGrath, 2012: 17-18; Wired, [November 2006]; CNN, [November 9, 2006] 참조). 사실 무신론의 역사는 유신론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이는 마치 지우개(eraser)의 역사가 필기구(筆記具, writing materials)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무신론과 구별하여 이들을 새로운

7) “또한 각 범주 안에도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한다. 무신론자라 하여 모두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역시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Haarsma & Haarsma, 2012: 45-46)고 지적한다.

무신론이라고 부름으로써 이들 양자 간에 구별을 꽤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본 연구자는 제기해 본다. “새로운 무신론자”에서의 ‘새로운’(new)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지니는 ‘극단적’(極端的)이고, ‘호전적’(好戰的)인 성격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지닌 호전성과 과거의 무신론을 구별하기 위해 무신론 앞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수식어로 붙여서 양자 간의 구별을 피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새로운 무신론자와 비교해 볼 때 과거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호전적이지도 않았으며 서로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지닌 호전성이 어느 정도 극단적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그라스는 새로운 무신론자와 구별하여 과거 무신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무신론은 알랭 바디우(Alain Badiou)나 줄리언 바지니(Julian Baggini), 존 그레이(John Gray)나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같은 이들의 고상하고, 온건하며, 관대하고, 합리적인 무신론과는 확연히 구별된다.”⁸⁾(McGrath, 2012, 131)

그래서 인지 몰라도 과거 무신론과 구별하여 새로운 무신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新) 무신론이란 “종교는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종교가 그 영향을 끼치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박되고, 비판되고, 합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주장하는 일련의 21세기 무신론자 작가들의 운동에 붙여진 이름이”(Simon Hooper, “The Rise of the New Atheists,” CNN; www.ko.wikipedia.org. ‘신무신론’ 항목 재인용)다. 게르하르트 로퓌크(Gerhard Lohfink)는 새로운 무신론의 호전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한 사악한 영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비단 유럽만의 상황이 아니리라). 점점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며 공격적인 자세로 등장하는 오늘날의 무신론은 지난 19세기 이래로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의 빛바랜 소위 ‘학문적 무신론’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전의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무신론 역시 자연과학을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과학을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자신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다.”(Lohfink, 2012: 11; 강조는 본 연구자).

새로운 무신론이 지닌 호전성 때문인지 몰라도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영안 교수는 “전투적 무신론”(강영안, “추천의 글” in McGrath, 2008: 7)으로, 고(故)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자신을 “반(反)-유신론자”(anti-theism)에 가깝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Hitchens, “추천사” in Stenger, 2010: 6) 여기서의 반(反)유신론자는 맥그라스에 의하면 “종교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호전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킨다.(McGrath, 2012: 57). 또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의 형태가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닮았다고 해서 “무신론적 근본주의”라고도 불린다. 비록 그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지만 말이다. 특히 도킨스는 자신을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 하였다. “나는 단지 이론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에게 폭탄을 터뜨리거나 누구의 목을 베거나 누구를 화형 시키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비행기를 고층 빌딩에 충돌시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질문자는 대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질지 모른다. ‘적대감 때문에 근본주의 무신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미국 남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근본주의자이듯이 당신도

8) 참고로 에코와 마르티니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보라. Umberto Eco & Carlo Maria Martini, *In Cosa Crede Chi Non Crede?* (Atlantide Editoriale, 1996). 이세욱 역,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판 2쇄 (열린책들, 2003).

나름대로 근본주의자가 아닌가요?’ 나는 근본주의라는 이 트집을 해결해야겠다. 지겨울 정도로 흔히 듣는 말이기 때문이다.”(Dawkins, 2007: 425-426). 도킨스의 무신론적 근본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맥그라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다. “도킨스는 자신이 무신론적 근본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McGrath & McGrath, 2008: 83, 2장 25번 註)

하버드 대학교의 휴머니스트 그레그 엡스타인(Greg Epstein) 교수도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호전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신론은 신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갖지 않는 반면, 반유신론은 신에 대한 믿음이 지닌 최악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밝혀 내 그것을 모든 종교의 표본으로 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유신론은 사람들을 부끄럽고 곤란하게 만들어 종교에서 돌아서게 하며, 호전적인 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사람들에게 고집적으로 주장한다.”(McGrath, 2012: 58 재인용; "Less Anti-theism, More Humanism," Washington Post, [October 1, 2007] 참조). 이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넘어, 종교 자체가 필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토론의 결론과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하나, 종교를 제거하는 것뿐이다.”(McGrath, 2012: 91-92)고 매우 극단적 주장까지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새로운 무신론’과 관련된 호칭

새로운 무신론과 연관된 호칭으로는 “지적사고”(I·T: intelligent thought) 개념과 “브라이트”(Bright)라는 개념이 있다. 먼저, “지적사고”는 “지적설계”(I·D: intelligent design) 운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장대익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지적사고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지적설계 운동으로부터 진화론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한 운동으로서 이 운동의 중심에는 호전적인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장대익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재의 AT(atheism movement: 무신론)운동에는 도킨스 외에도 『주문을 풀다』(Breaking the Spell, 2006)라는 책을 통해 종교를 자연현상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닛, 『신앙의 종말』(The End of Faith, 2004)이란 책으로 종교의 비과학성과 비합리성을 고발한 샘 해리스(S. Harris), 『신은 위대하지 않다』(God is not Great, 2007)로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기독교의 허상을 고발한 히친스 등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고, 「엣지」(edge)라는 최고 수준의 지식유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브룩만도 배후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ID운동으로부터 진화론을 수호하려는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서 IT(Intelligent Thought)운동을 전개했고, 이 IT운동은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계기로 AT 운동으로 진화했다(장대익, 2009a: 302).

“브라이트”(bright)라는 개념은 동성애자들이 그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게이’(gay, 명량한)라고 명명한 것처럼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그들을 브라이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브라이트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무신론’이란 용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분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은 안 두 명의 캘리포니아 교육전문가 폴 게이세르트와 뮌가 푸트렐(Paul Geisert and Mynga Futrell)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지닌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브라이트’(Bright)라는 단어를 만

들어 왔다. ‘게이’가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훨씬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듯이, ‘브라이트’가 무신론자와 그들의 여행 동반자들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McGrath, 2012: 75) 브라이트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고(故)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데 반해, 대니얼 데닛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데닛은 자신의 책 『주문을 깨다』에서 ‘브라이트’라는 단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Dennett, 2010: 47-48; "The Bright Stuff" New York Times [July 12, 2003] 참조). 물론 데닛은 브라이트의 개념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자유사상가, 세속적 인본주의자, 그리고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Dennett, 2010: 388)

2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호전성

1) 새로운 무신론이 호전적인 이유

그렇다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전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맥그라스가 『신 없는 사람들』의 제2부의 “새로운 무신론의 주장들”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종교가 매우 ‘폭력적’이며, 매우 ‘비이성적’이고, 매우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McGrath, 2012: 91-116, 117-148, 149-181).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염두(念頭)해 둔다면 대표주자격인 리처드 도킨스의 예를 통해 이들이 유신론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킨스가 자신이 종교에 대해서 호전적인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은 『만들어진 신』의 “8장. 내가 종교에 적대적인 이유”와 “9장. 종교로부터의 도피”(Dawkins, 2007: 423-471, 473-527)에서 발견 할 수 있다. 도킨스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도 적대적인 이유는 종교가 너무 ‘근본주의적’이라는 것이고, 타종교에 대해서 개종(改宗)을 강요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적대적이며, 극단적 방법으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위대한 베토벤 오류’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고,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비역질과 같은 아동학대를 생산하고, 여성 할례와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서 선택권을 빼앗는다는 것이다.(도킨스는 종교에 대한 호전성은 『악마의 사도』의 “3. 감염된 정신”[Dawkins, 2005: 219-299 참조]에서도 볼 수 있다)

2) 새로운 무신론의 호전성의 구체적 사례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무신론자의 호전적 사례는 매우 상대적인 기술임을 밝힌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호전적으로 보이는 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전적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가 호전적 예에서 제외한 어떤 사례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호전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호전적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마더 테레사에 대한 히친스의 사례와 더불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줄리안 바지니(Julian Baggini)의 대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언어폭력이 그러한 예(例)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좌장(座長)격인 리처드 도킨스(9)의

자극적인 일련의 행동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고(故)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사례다. 히친스는 마더 테레사에 대한 평가¹⁰⁾를 자신의 책 『자비를 팔다』(Missionary Position)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선교가 배달되는 진짜 주소는 후원자와 기부자의 자기만족이지 깃뻛힌 자들의 필요가 아니다. 의지할 데 없는 아기들, 버려진 낙오자들, 나환자와 말기 환자들은 동정의 과시를 위한 원자재들이다. 그들은 불평한 입장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동성과 비천함을 훌륭한 면모로 여겨진다. 이 거짓된 위안의 세계적이고 지도적인 대변인, 마더 테레사 자신의 우중(愚衆) 선동가이며, 우민(愚民)정책가이고, 세속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Hitchens, 2002: 80) 히친스가 테레사 수녀에게 한 극단적 사례의 전말(顛末)은 맥그라스의 책에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히친스는 테레사 수녀를 ‘광신도, 근본주의자, 사기꾼’이라고 혹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비참해졌다. 그 매춘부가 가야 할 지옥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히친스는 나중에 이와 같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McGrath, 2012: 59; cf, www.current.com/shows/upstream/91393992_atheist-christopher-hitchens-apologizes-for-mother-teresa-insult.htm에서 히친스의 마더 테레사에 대한 사과 참조)고 한다. 사실 히친스의 책 『자비를 팔다』의 원(原)제목 또한 매우 도전적이다. 왜냐하면 “자비를 팔다”의 영어 제목은 “Missionary Position”으로 이는 문자적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시 ‘정상 체위’(a position for sexual intercourse)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의 자선행위를 일종의 돈을 위한 야합(野合, 성행위)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 새로운 무신론자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호전적인 예로 언급할 수 있는 예로는 바로 무신론자인 줄리안 바지니(Julian Baggini)에 대한 인터넷 상의 언어폭력이다.

바지니는 노르웨이의 휴머니스트 잡지인 「자유사상」(Fri Tanke)에 글 하나를 실었다. 이 잡지는 웹 사이트에 큼지막하게 -하지만 바지니가 직접 고르지 않은 제목을 단 영어판 초고를 게시했다. “새로운 무신론 운동은 파괴적이다.”[줄리안 바지니의 글의 원제목은 “Nyateismen virker mot sin hensikt”이고, 영어 본문은 www.fritanke.no/ENGLISH/2009/The_new_atheist_movement_is_destructive 참조] 새로운 무신론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공세를 펼쳤는데, 그 비판은 명백히 내용보다는 제목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중에 바지니는 자신의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씩씩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RichardDawkins.net의 여러 비평가들에게 이단자로 낙인찍혀 화형 당했다. 그들은 나를 벌레, 머저리, 든 거라고는 공기밖에 없는 에어백 등으로 불렀다.”(www.julianbaggini.blogspot.com/2009/03/new-atheist-movement-is-destructive.html. 참조; McGrath, 2012: 68 재인용).

9)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지의 ‘올해의 세계 사상가 65인’에 1위 리처드 도킨스, 3위에 스티븐 핑커가 선정되었다.(유병선, “올해 최고 사상가는 리처드 도킨스 교수 ... 장하준 교수는 18위” 『경향신문』 (2013.04.25) 일자; http://ne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252219035&code=970100.);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다. 아마도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일 것이다.”(Hagerty, 2013: 336)

10) 참고로 몬트리올 대학교 오타와 대학 연구자들이 테레사 수녀가 실제로 “성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논쟁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배문규, “캐나다 연구진 ‘테레사 수녀 과대평가 됐다’”. 『경향신문』 (2013.03.07) 일자; http://ne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71841391&code=970100.)

도킨스의 극단적이며 호전적이 일련의 태도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¹⁾ 새로운 무신론자의 좌장격인 도킨스는 자신의 『만들어진 신』의 영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망상 즉 신 망상(神 妄想, The God Delusion)을 뜻한다고 한다. 더 심하게 도킨스는 『악마의 사도』에서 밝힌 것처럼 종교를 “정신 기생체” 또는 “정신 바이러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1976년 이후로 나는 늘 종교가 밈과 밈 복합체(meme complex 또는 memplex)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다. ‘정신 바이러스’에서는 정신 기생체로서의 종교라는 이 주제를 더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컴퓨터 바이러스에 비유했다.”(Dawkins, 2005: 220; 239-272 참조) 도킨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를 정신 바이러스로 묘사하면, 종교를 비난하거나 심하면 적대시한다는 식으로 해석되곤 한다. 둘 다이다. 나는 ‘체계를 갖춘 종교’에 왜 그렇게 적대적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럴 때면, 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종교에도 똑같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로 서두를 떼곤 한다.”(Dawkins, 2004: 220). 도킨스는 2009년 초에 거액을 기부해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이를 계기로 해서 무신론 운동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한다.(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2010: 169).

하거티(Barbara Hagerty)는 존 배로우와의 강연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Richard Dawkins]는 다른 과학자들의 강연, 특히 세계적인 석학 존 배로우의 강연을 들으려고 케임브리지에 남아 있었다. 영국성공회 신자인 존 배로우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을 하자, 도킨스는 근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찻주전자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짜증을 냈다.”(Hagerty, 2013: 336).

Ⅲ “새로운 무신론”의 신

1 새로운 무신론의 신¹²⁾

11). 김기석 교수는 『이기적 유전자』를 비롯한 도킨스의 여러 저작에 나타난 종교 비판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고 한다.(김기석, 2009: 21-22) 첫째. 전통적인 유신론은 신비롭고 정교한 생명 현상을 보면서 설계자인 신을 유추하게 하였지만, 다윈주의가 제공하는 설명은 그러한 설계자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종교는 증거가 아닌 신념에 근거하여 존속하는데, 이는 엄격한 증거에 토대를 둔 과학 정신과 상반된다. 진리는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하며, 과학이 옳다면 종교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종교는 시대적, 문화적 편견에 사로 잡혀 세계에 대해 빈약하고 제한적인 모습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과학이 설명하는 세계는 보편적이고 장엄하며 제한이 없다. 넷째, 종교는 결국 악에 이른다. 그것은 마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의 마음을 전염시켜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살상에 이르게 한다.

12) 홉슨은 자신의 책 “Part 2. 또 무엇이 믿음일까?”(Hobson, 2013: 51-105)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경제 위기, 심리적 불안을 예로 들어 믿음의 광범위한 의미를 살펴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누릴 정치적 개인적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믿음의 의미에 대한 의문은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는 정도로 사소하지 않다.”(Hobson, 20103: 110). 계속해서 홉슨은 “나는 종교적 의미와 비종교적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다. ‘믿음’에서 종교적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Hobson, 2013: 11)고 지적한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은 종교라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이들에게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먼저 샘 해리스(Sam Harris)의 경우를 보자. 그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한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해리스 자신은 이를 종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해리스의 저서인 『종교의 종말』의 “제7장, 의식의 실험”(Harris, 2005: 244-264 참조)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신비주의는 이성적인 모험이다. 종교는 그렇지 않다. 신비주의자는 생각보다 우선하는 의식의 본성에 대해 무언가를 깨친 사람으로서 이러한 깨달음은 이성적인 토론으로 쉽게 연결된다. 신비주의자는 그가 믿는 바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들은 경험적이다.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미스터리라는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거나 (이를 과학이라 한다), 개념에 얽매이지 않은 채 경험될 수 있다(이를 신비주의라 한다) 종교는 좋은 생각들의 집에 억류되어 있는 나쁜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끝없는 인간의 무지를 부정(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가득한 채로)한다. 영적 경험과 윤리적 행위와 강력한 공동체는 인간의 행복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진실은 종교의 핵심에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 전통들은 지적인 면에서 그 효력을 잃었고 정치적으로는 파멸했다. 영적 경험은 인간 정신의 자연적인 경향임에 확실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 확실히 이성과 영성과 윤리를 우리의 생각 안에 공존시키는 일은 가능해야만 한다. 이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에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신앙의 최후가 될 것이다.(Harris, 2005: 264)¹³⁾

인도(印度) 학자 미라 난다(Meera Nanda)는 해리스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맥그라스의 인용 글이다. “힌두교 신자였다가 무신론자가 된 인도 학자 미라 난다(Meera Nanda)는 2006년, ‘새로운 휴머니스트’(New Humanist)에 실은 한 기사에서, 해리스는 새로운 무신론 안의 위험한 흐름, 곧 무신론자들이 맹신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린 뒤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유신론 종교에 대한 해리스의 비판은 ‘자신이 신봉하는 족첸 불교(Dzogchen Buddhist)와 비이원론적(Advaita Vedantic) 힌두교 영성’을 지지하려는 토대에 불과한 것이다. ‘영성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라는 미신과 별이고 있는 전쟁에 대한 해결책이다. 영성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도 유익하다. 영성은 우리를 ‘행

13) “철학, 인지과학, 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의식을 다루고 있는 현대 저작물조차도 불교교리 전체를 통틀어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현상학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Harris, 2005: 259);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히친스가 자신의 책 “14장. ‘동방의’ 해법은 없다”(Hitchens, 2007: 285-298)는 내용은 Sam Harris의 견해를 의식하면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에서 기술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Harris는 ‘이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독립된 장(Chapter)을 통해 공격하면서도 불교에 대해선(그의 말을 빌리자면 신비주의) 침묵과 동시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히친스의 답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복하고, 평안하고, 심지어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McGrath, 2012: 94-95 재인용; Meera Nanda, "Spirited Away" New Humanist. 121(3) (May/June 2006) http://newhumanist.org.uk/973/spirited_away. 참조)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의 한글판 역자(譯者)인 김원옥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다. “저자[샘 해리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이렇다. 저자는 이성적인 증거와 논거가 결여되어 있으면서 편협한 주장으로 가득한 주류 종교를 위험한 것으로 보는 대신, 동양의 영성 혹은 신비주의(불교로 대표되는데, 저자는 불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대신 이렇게 표현한다)가 종교를 대체할 수 있고, 심지어 인류 대화합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 영적 과학으로 보고 있다.”(김원옥, “옮긴이의 글” in Harris, 2005: 7)

테오 홉슨(Theo Hobson)도 “해리스는 『종교의 종말』의 마지막 장에서 이성적 신비주의를 통한 의식의 확장을 주장한다. 이는 길 잃은 뉴에이지(New Age) 운동의 영역 확장과 비슷하다.”(Hobson, 2013: 35-36)고 지적하였다.

도킨스(Richard Dawkins)의 경우¹⁴⁾는 어떤가. 그는 『에덴 밖의 강』(후에 동일 역자에 의해 출판사를 바꿔서 『에덴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됨)에서 과학의 종교성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종족이 고유의 기원신화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설명한다. 과학이 최소한 현대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신화와 동등한 어떤 것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 일리는 있다. 과학은 일종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다.(Dwkins, 1995: 55)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의 “9장 종교로부터의 도피”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선택권은 아이에게’에서 주장하길, 종교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 강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awkins, 2007: 496-504).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도킨스는 또 다른 자신의 저서인 『악마의 사도』에서는 위의 주장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딸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킨스는 자신이 앞서 주장하였던 동일한 선택권을 자신의 딸인 줄리엣에게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마의 사도』의 “7장 딸을 위한 기도” ‘믿음의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에서 자신이 비판한 종교와 똑같이 도킨스 자신도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종교(god, 신)에 대해서 도킨스의 표현대로 “유아 세뇌화”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Dawkins, 2005: 445-458 참조)¹⁵⁾ 도킨스가 종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자신의 딸에게 한다는 점에서 도킨스 또한 또 하나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14) 박일준(2008)도 도킨스의 저서에서 종교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더불어 종교적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 자신에 딸에 대한 도킨스의 유아 세뇌화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과학자들은 세계를 알기 위해 증거들을 이용하는데, 아주 창의적이고 복잡해서 이 짧은 편지에 다 쓸 수가 없어. 그 대신 나는 증거 이야기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단다. 증거는 무언가를 믿기 위한 좋은 이유가 되지.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믿기 위한 나쁜 이유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네게 알려주고 싶어. 그것은 ‘전통’, ‘권위’, ‘계시’라고 불리지.”(Dawkins, 2005: 449).

김윤성 교수도 이점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정작 도킨스 자신도 그의 딸에게 전통이나 권위, 그리고 핵심 기제인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전달하여 애쓰지 않던가요? 그의 『악마의 사도』에 실린,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김윤성, 2009: 99)

맥그라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도킨스의 종교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성과 논리를 따르는 자유사상가’라고 불리는 다른 그룹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새긴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도킨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라.)”(McGrath, 2012, 73 재인용; www.zazzle.co.uk/what_would-dawkins-do-tshirt. 참조).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What Would Jesus Do?: WWJD)를 패러디(parody)한 것으로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종교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맥그라스는 또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오늘날 새로운 무신론이 점차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 운동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나아가 종교 사회학의 범주를 여기에 적용해 볼 때, 새로운 무신론 운동이 밀교(sect)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경계선을 치고 커뮤니티 내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절대로 오류가 없는 경전을 갖고 있으며, 오직 자신의 지도자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드리는 형태는 실제로 밀교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McGrath, 2012: 73)¹⁶⁾ 또 다른 곳에서 맥그라스는 “무신론 또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는 또 다른 의미의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영국 사회의 무신론자들의 모임을 보면, 그 안에 지도자, 교리, 단체, 그리고 그들만의 참배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일요일마다 리처드 도킨스의 영상을 시청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숭배라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무신론은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2010: 176)고 동일한 의미의 진술을 한다.

「전망」(Prospect)이라는 잡지에 실린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한 서평의 제목도 다름 아닌 “교조주의자 도킨스”라고 지적한 점(McGrath & McGrath, 2008: 21) 또한, 리처드 도킨스의 종교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홉슨은 도킨스의 믿음에 대해 다음을 지적한다. “도킨스도 일종의 믿음을 지녔을까? 그가 일종의 이상주의를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책의 첫 장에는 자기 책으로 말미암아 일부 독자들이 종교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썼다. 또한 좀 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존 레논이 노래했던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레논은 노래에서 일종의 공상적 이상주의와 무신론을 연결했다. 도킨스는 레논의 이런 개념을 주의 깊게 반복한다.”(Hobson, 2013: 30)

로버슨도 “당신[Richard Dawkins]의 논리 실증주의의 철학은 당신의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입니다. 당신의 삶이고요, 당신의 믿음이기도 합니다.”(Robertson, 2008: 196)¹⁷⁾고 지적하였었다.

16) “영혼을 구원받고 싶다면 도킨스의 글을 읽어라.’ DNA구조를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프랜시스 크릭은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진화생물학자이자 다년간 베스트셀러를 써온 작가이기도한 도킨스를 이렇게 표현했다.”(Dawkins, 2005; “『악마의 사도』 앞 장 표지 뒷면의 글”에서).

17)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물질적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만이 실상 모든 적법한 지식을 망라한다고 암시한다. …… ‘새로운 무신론’에서 오래전에 신빙성을 잃은 이 학파의 환생을 본다. 그리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Andrew, 2012: 74); 플루(A. Flew)도 새로운 무신론을 ‘돌아온 실증주의’(Flew, 2011: 18)라고 지적한다.

다니엘 데닛(Daniel Dennett)에게서도 종교를 맞볼 수 있다. 물론 그 또한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면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말이다.

나 역시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의 구원이 그것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그들의 눈을 돌림으로써, 그리고 인간 본성의 결점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나의 믿음은 종교가 아닌가? 아니다. …… 그래서 나는 진화라는 단어의 전파를 도덕적 명령으로 느끼지만, 진화는 나의 종교가 아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Dennett, 2010: 348-349)

자신의 종교를 부인하는 대니얼 데닛과 관련된 다음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눈감도 생각해 보라. 데닛에게 종교가 없는 것 같은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다음은 장대익 교수가 데닛에 대해서 들려준 에피소드다. “데닛이 9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깨어난 이후에 쓴 에세이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엣지 재단(Edge Foundation)의 사이트에 올려놓았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 그 글의 제목은 ‘Thank God’을 패러디한 ‘Thank Goodness’였어요. 그 글에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학의 발전과 의료진의 선한 도움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神)’이 아닌 ‘선(善)한 것’들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겠죠.”(장대익, 2009b: 142-143).

히친스의 경우에는 어떤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몽주의 운동이다. 인류의 견본은 바로 인간 그 자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 운동 말이다.”(Hitchens, 2008: 411) “‘Die Stimme der Vernunft ist leise’ 이성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성의 목소리는 또한 매우 끈질기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수많은 투사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바로 이 이성의 목소리에 우리는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다.”(Hitchens, 2008: 415, “감사의 말”에서)¹⁸ “내가 언급한 모든 사례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향거하는 사람, 광신의 물결과 죽음의 종교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나만 해도 자신의 종파나 교리보다 인류애를 더 중히 여겼던 사제, 주교, 랍비, 이맘을 몇 명 알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종교 때문이 아니라 인류애 때문이었다.”(Hitchens, 2008: 49). 이러한 히친스의 논리는 “19장. 결론: 새로운 계몽이 필요하다”(Hitchens, 2008: 403-412)로 당연한 귀결을 이룬다.

2 과학주의 신

그렇다면 새로운 무신론자의 신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신은 “급진적 진화론적 과학주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명칭이 사용 가능하다면 말이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명칭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18) 히친스의 『젊은 회의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to a Young Contrarian). 차백만 역. (서울: 미래의창, 2012)을 읽어보면 그의 계몽주의적 시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장을 살펴보면 “과학주의”(scientism)의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주의로 인한 신(존재)의 부재를 진화론적(evolutionary) 관점인 ‘진화’라든가, 또는 ‘자연선택’의 개념으로 그 신의 부재의 틈새를 메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앞서서 새로운 무신론이라는 명칭이 그들의 호전적 성격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급진적’(ultra)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참고로 최석(2013)은 “과학적 무신론”(scientific atheism)이라는 명칭으로, 정진우(2012)는 “과학주의 무신론”(atheism of scientism)이라고 적고 있다.

1) 과학주의

먼저 과학주의¹⁹⁾란 무엇인가. 이 개념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논리실증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Harris, 2013b: 142). 때로는 ‘과학제국주의’(Scientific Imperialism)라고도 부르는 과학주의는 “과학만이 실재에 대해 진정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교리’라고 정의되어져 왔다. 즉 ‘과학적 사실들만이 유일한 사실들’이며 그 외의 다른 진술들, 즉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진술들은 지적이지 못하고 인식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Harris, 2013b: 142 재인용). 다시 말해 과학주의는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본성을 규명해 주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줄 것이라는 견해를 가리킨다.”(McGrath, 2012: 159)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과학주의는 다른 여러 사상들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과학주의의 특징을 그 내용 면에서 다음 3 가지로 축소하려고 한다. 먼저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합리(이성)주의”를, 경험과 측정에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방법(방법론적 자연주의)”을, 그리고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기초 원리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환원주의”를 과학주의의 특징으로 취급하고자 한다(과학주의에 대한 것은 조덕영, “과학주의(Scientism)는 기독교적인가?” <http://christiantoday.co.kr/> 참고). 과학주의에 대한 앞의 3 가지 특징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연구자의 편의에 의한 구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 특징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2) [극단적] 합리(이성)주의 · 환원주의 · 과학적 방법

그렇다면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과학주의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합리(이성)주의, 환원주의 및 과학적 방법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극단적 합리(이성)주의

19) “과학주의는 결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학은 우주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온건하고 믿음직하며 생산적인 방법인 반면 과학주의는 과학이 총체적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가정이다. 과학주의는 ‘객관적’ 실재와 인간의 이성을 접촉시키는 완전히 믿을 만한 유일한 방법으로 과학을 떠받드는 철학적 신념(엄밀히 말하면 ‘인식론적’ 신념)이다.”(Haight, 2003: 27).

간단하게 정의하면 합리(이성)주의(rationalism)란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사물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한다.(http://dic.naver.com/ “합리주의” 참조)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부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종교가 자신들의 이성과 일치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종교는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합리(이성)주의는 자연주의적 요소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배제한다.²⁰⁾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한다. 그러한 이유로 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오게 된다. “종교가 가지는 문제는 …… 비이성적이라는 독약을 너무 많이 섞었다는 점이다.”(Harris, 2005: 244)

합리(이성)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종교 비판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진다. 먼저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거나 지적설계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구체적으로 종교 텍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거나, 사회적 현상에서 발생하는 종교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1) 먼저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

(1) 종교의 텍스트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히친스에게서 텍스트 자체를 공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히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의 “7장. 계시: 악몽 같은 구약”(Hitchin, 2008: 147-162)과 “8장 신약의 사악함은 구약을 뛰어넘는다.”(Hitchens, 2008: 163-183)를 통해 성경 텍스트에 대해서 공격한다. 스텐저도 『물리학의 세계에 신의 공간은 없다』의 “6장”(Stenger, 2010: 209-237)에서 성경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는 데, 특히 성서(고등)비평가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텍스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경고고학의 ‘최소주의자’(minimalist) 학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핑클스타인과 네일 실버만(Israel Finkelstein and Neil Asher Silberman)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성경의 많은 자료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Stenger, 2010: 232-236).

이 외의 다른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텍스트 비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

20) ‘과학자-신학자’(Scientist-theologians)이라고 불리는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이 제시하는 합리성과 비교해 보아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합리성과 세계의 합리성 사이에 놓여 있는 뿌리 깊은 공유점이 진실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면, 그 설명은 양측의 토대가 되는 좀 더 깊은 근원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신의 합리성이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McGrath, 2008: 287 재인용); 합리(이성)주의에 관계해서 다음의 문장이 주는 의미를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사실상 정말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도 외형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다. 그것은 수수께끼와 논리적 난제와 마술 묘기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런 작용방식은 신학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다’라는 문장과 ‘하나님은 세 위격이다’라는 문장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완전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장들이 도저히 참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마음을 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탓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순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극도로 다른 존재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길들여진 ‘하나님’을 만들어 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Forster, 2013: 265).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체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부정한다. 즉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무신론자에게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극단적 합리주의와 극단적인 형태의 이성주의는 초자연적 요소에 대해 전적인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수용의 공간이 부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는 초자연적인 종교현상에 대한 이해 불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설사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이성으로 이해 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자연의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의 경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처녀생식의 현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에도 신화나 문학작품에서 언급하는 의미에서 그 이해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할 뿐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 그 이상의 사고전향(思考轉向: thought shift, 일종의 paradigm shift)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가지는 초자연적인 진면목에 대한 이해에 한계를 맞볼 수밖에 없게 된다.

(2)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또한 오늘날 발생하는 종교의 부정적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종교의 비합리(비이성)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해리스는 『종교의 종말』 “1장. 추방당한 이성”(Harris, 2005: 13-59)이라는 장을 통해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의 부정적 실태들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가 바로 종교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추방당한 결과로 발생한 예(例)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한 마디로 종교란 이성과 거리가 매우 먼 비이성적이라는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결핍된 종교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했다는 것이다.

스텐저도 『물리학의 세계에 신의 공간은 없다』의 “7장”(Stenger, 2010: 239-263 참조)에서 특히 기독교의 역사적 오류들인 노예제도, 박해, 고문 등의 예를 통해 종교의 가치(즉 윤리성)를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가치는 신의 명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답한다. “인간의 도덕과 가치가 신의 명령에서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인간성에서 온다. 그것은 인본적인 것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도덕성의 자연적(생물학적, 문화적, 진화적) 기원에 관해서는 문헌이 상당히 존재한다.”(Stenger, 2010: 261)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종교의 부정적 측면은 합리(이성)주의 시각을 지닌 새로운 무신론자에게 더욱 더 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한다. 일반인들도 어떤 사회현상에서 종교의 부정적 측면을 접할 때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리게 되는데, 호전적 새로운 무신론자에게는 그러한 반향(反響)은 더욱 더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합리(이성)주의는 또한 지적설계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다. 먼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연 현상에서 어떻게 지적설계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한다.

동물학자인 도킨스의 경우를 보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사례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결코 경제적이지 않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불완전한 설계를 가지고 지

적설계자를 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도킨스의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그의 책들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에덴 밖의 강』(후에 『에덴의 강』), 『만들어진 신』의 단골 주(主)메뉴다. 특히 『에덴 밖의 강』의 “3장, ‘모르는 사이에 점차 나아지기’”(Dawkins, 1995: 86-87)에 나오는 난초의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생식 전략을 볼 때 그것이 신이 만든 완전한 설계인가라고 반문한다. 지적인 설계자가 만든 완전한 설계라면 어떻게 난초(蘭草)와 자신의 짝이 되는 상대인 암컷 맵시벌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지적설계자가 벌을 설계했겠느냐 하는 지적이다.

해리스는 남성의 ‘전립선’과 여성의 ‘선과 셋길’을 예로 들어 같은 논조(論調)로 비판한다. “우리가 지적설계론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이 현상은 완전히 불가사의다. 남자의 몸에는 전립샘과 직접 연결되는 요로가 있다. 전립샘은 살면서 점점 팽창한다. 결국 60대 이상의 남자들은 푸른 지구를 만든 신이 전립선을 더 잘 설계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자의 골반은 출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지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여자들이 매년 길고도 위험한 출산을 겪으며, ‘산과 셋길’(난산의 후유증으로 질과 방광 또는 질과 직장 사이에 잘못된 셋길이 생겨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질병-역주)이라는 파열을 겪기도 한다.”(Harris, 2008: 94) 그리고 자신의 논리에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이 문제로 고통을 받는 여자들은 실금(소변이나 대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질병-역주)이 되기도 하며, 남편에 의해 버림받거나 마을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200만 명 이상의 여자들이 지금도 이 셋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구체적 수학적 통계를 덧붙여서 지적설계자의 오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는지를 보여 주려고 애쓰고 있다.(Harris, 2008: 94).

우주천문물리학자인 스텐저는 우주천문물리라는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도록 지적설계자에 대한 비난의 시선을 우주로 돌려서 이와 유사한 논증을 전개한다. “에너지 역시 낭비다.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 가운데 10억 개 당 2개의 광자만이 지구를 덥히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쓸데없이 우주로 방사된다.”(Stenger, 2010: 197-198)고 지적한다. 똑똑한 지적설계자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에너지 낭비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앞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하자. 과학주의가 지닌 극단적 합리(이성)주의는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의 텍스트 자체를 부정하고, 종교적 부정적 관행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견해는 종교(기독교)를 하나의 신화(myth)로 치부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이 합리(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설계자 즉 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다. 과학주의의 이러한 극단적 합리(이성)주의적 시각은 자연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연히 제 3자의 눈을 지적설계자(신)가 아닌 후술할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적 관점으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지적설계자(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빈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지”라고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해 “그렇다면 ‘진화’, ‘자연선택’?”이라고 스스로 답하게 되는 것이다.

(2) 환원주의

일반적으로 환원주의(還元主義, reductionism)란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기초 원리나 개

념으로 설명하는 방식”(http://dic.daum.net “환원주의” 참조)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주의가 지니는 극단적 환원주의 형태다(학문에 있어서 환원주의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극단적 환원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의 원인을 종교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연구들은 극단적 환원주의의 관점²¹⁾에서 접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접근으로 얻은 연구결과들에 대해서도 매우 맹신적으로 취합한다.(그래서 ‘근본주의’라는 명칭이 이들에게도 붙어 다닌다).

예로 들어 (9·11)폭탄테러, 중세의 마녀사냥, 십자군전쟁, 폭력, 종교재판, 홀로코스트, 노예제도, 인종차별(Apartheid) 등의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종교’로, ‘예수’로, 때로는 ‘신’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발생에는 여러 원인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히친스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청소’는 인종청소라기보다는 ‘종교청소’라고 해야만 한다고 역지주장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특히 드리나 강 일대에서는 세르비아인들이 ‘인종청소’라고 스스로 명명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마을이 약탈당하고 주민들이 학살되었다. 사실 인종청소보다는 ‘종교청소’라는 말이 더 정확했을 것이다.”(Hitchens, 2008: 40) 히친스의 이러한 주장도 일종의 극단적 환원주의적 사고에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종의 범위가 어느 특정 종교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아마 이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는 종교적일 수 있으나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유대인(민족)이라고 해도 다 유대교(종교)인가. 기독교국가(Christendom, 어떤 이들은 이 명칭을 부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중세에도 모든 인종이나 민족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타종교인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 중 일부는 무신론자로 그리고 불가지론자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히친스의 논리 전개에서 ‘사회문제 = 종교’라는 극단적 환원주의가 있음을 맥그라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히친스는 구소련이 실제로는 종교적인 체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덕과 폭력이 난무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산주의가 종교가 되자 모든 일이 끔찍해졌다고 말이다.”(McGrath, 2012: 104) 맥그라스는 계속해서 다음을 지적한다.

확신에 찬 히친스의 선언 저변에 흐르는 빈약한 사고과정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란 쉽

21) 환원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위 이야기’]는 감동적인 러시아 민담으로, 남동생이 없어진 것을 부모님이 알아차리기 전에 사악한 마녀 바바 야가(Baba Yaga)의 손아귀에서 남동생을 구해 내려고 애쓰는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다. 소녀는 오븐과 사과나무, 잣이 흐르는 강, 작은 쥐의 도움으로 결국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 몇 년 전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는 러시아 민담의 이론적 모델을 개발했다. 프로프는, 이 민담들이 똑같은 순서로 배치된 똑같은 기초적 구성 블록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야기는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적 표상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31개의 요소 중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거위 이야기’에 대한 그의 이론적 표상은 이런 형태를 띤다.

$$\forall \{ \delta^1 A^1 C \uparrow \{ [DE^{neg} F^{neg}] G^4 K^1 \downarrow [Pr^1 D^1 E^1 F^9 = Rs^4]^3 \} \}$$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방정식으로 환원된다. 그 안의 극적인 사건과 등장인물, 이야기의 속도, 흥분의 감정은 사라져 버린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해 보이는 것만 남는다. 왜 많은 사람이 이론의 환원론적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McGrath, 2011: 231 재인용).

지 않다.

그러나 그의 사고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식의 전제를 깔고 전개되는 듯하다.

대전제: 종교는 악하고 폭력적이다.

소전제: 구소련은 악하고 폭력적이었다.

결 론: 따라서 구소련은 종교적이었다.(McGrath, 2012: 105)

해리스는 신경과학자라는 자신의 전공에 맞게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The Moral Landscape) 등과 같은 저서에서 모든 현상을 뇌의 작용으로 환원하려고 한다. “인간의 뇌는 믿음의 엔진이다. 우리의 뇌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통합한다.”(Harris, 2013b: 27). “뇌는 물리적 체계로서, 온전히 자연법칙에 따른다. 따라서 뇌의 기능적 상태와 물질적 구조에 생긴 변화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믿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정신이 영혼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나의 주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 뇌의 무의식적 생리 작용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더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Harris, 2013a: 20) “내가 펼칠 주장도 논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아주 간단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세상의 사건과 인간 뇌의 상태에 의존한다. 따라서 행복을 설명해줄 과학적 사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Harris, 2013b: 11) “나 역시 과학 내의 통섭(consilience) 개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과학의 전문 분야들 간의 경계 문제를 우선 대학의 구조와 일생 동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배움의 한계에 대한 함수로 본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만큼은 신경과학과 기타 정신과학이 우선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인간의 경험이 보여주는 존재의 징표는 뇌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그 안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Harris, 2013b: 18-19)

데닛은 종교를 자연현상으로 환원한다. 그래서 “5. 종교는 자연현상이다.”(Dennett, 2008: 52)고 선언하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 내 말은 종교는 ‘초자연’과 대립하는 의미로서 자연적이라는 것, 전적으로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법칙을 따르는 사건, 유기체, 객체, 구조, 패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기적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적 현상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의미하는 것이다. 신은 정말로 존재할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 모두를 창조한 지적이고, 의식적이고, 사랑을 베푸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종교 자체는 여러 현상들의 복잡한 집합체로서 완전히 자연적인 현상이다.”(Dennett, 2008: 53) 데닛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환원을 통해 종교의 기원을 이끌어 낸다. 『주문을 깨다』의 한글판, “해설: 초자연적 현상이 있을까?”를 쓴 최종덕은 이 책에 나타난 데닛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책을 서술 논리는 이렇다. 종교는 문화적 체계다. ⇨ 문화는 지향적 자세의 양상이다. ⇨ 인간 문화 양상에서 종교는 대표적인 지향적 자세다. ⇨ 생명 유전자가 진화하듯 지향적 자세도 똑같이 진화한다. ⇨ 진화의 방향에는 목적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지향적 자세도 목적이 없다. 그러나 자연의 물리-화학 법칙은 제한을 받는다. 이를 데닛은 ‘부유하는 합리적인 근거들’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적응주의, 비적응주의, 발생계 이론, 개체선택 이론, 집단선택 이론 등의 다양한 진화 이론을 통해 종교현상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 종교도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들의 조건을 지향적 자세다. ⇨ 그래서 종교의 원리들은 자연적인 변형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체계일 뿐이다. ⇨ 종교에서

선형적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라는 지향적 체계는 도덕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도덕적 원리는 절대적인 선형성이 아니고 인간 사회의 최적화를 위한 자연적 체계일 뿐이라는 점을 데닛은 강조한다. 그래서 종교 역시 도덕적 숭고함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런 숭고함이나 절대성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mim의 진화 역사 속에서 인간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최종적, “해설: 초자연적 현상이 있을까?” in Dennett, 2008: 13, 참고 전체는 7-14)

도킨스에게서도 한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던(김동광·김세균·최재천 엮음, 2011 참조) 생물학적(유전자) 환원주의를 만나볼 수 있다. 도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나는 선택의 기본 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단위가 종도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Dawkins, 2010: 52)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환원주의적 시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병폐의 원인은 하나의 유일한 요인(the factor)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many factors)들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테러만 보더라도 종교만이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턴은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페이프(Robert Pape, Dying to Win: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2005 참조) 교수가 1980년 이후 발생한 모든 자살폭탄테러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를 보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근본 동력이라는 가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Eagleton, 2010: 146)고 지적하였다.

헨리 지루(Henry Giroux)는 리사 던건(Lisa Duggan)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테러리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와 테러리즘이 상호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Giroux, 2009: 33 참조).

링컨(Bruce Lincoln)은 “빈 라덴과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테러범들의 지령문과 편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발언, 언론 기사 등에 대한 치밀한 담론분석을 통해 빈 라덴과 부시 정권의 대립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단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대립만이 아님을 밝혀냅니다. 거기에는 종교, 정치, 문화, 경제, 사회의 온갖 요소들이 근대적 욕망과 켈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종교적 요소는 실질적으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대중 동원의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신재식·김윤성·장대익, 2009: 304-306 재인용)의 결과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지적처럼 테러의 원인의 배후에는 종교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출신의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는 다양한 차이를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센의 지적은 평가에 있어서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바로 환원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한다.

세계의 가지각색의 차이가 단 하나의 지배적 분류 체계라고 주장된 것에 의해 단일화될 때, 즉 종교로, 또는 공동체로, 문화로, 국가로, 문명 등으로(이들 각각을 전쟁과 평화 같은 특정한 접근 맥락에서 독보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단일화될 때,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은 맹렬한 도전을 받게 된다(Sen, 2009: 18).

맥그래스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다. “지적해야 할 첫 번째 핵심은 단순하다. 곧 ‘종교’를 잘못 일반화한 것이다.”(McGrath, 2012: 93). 그는 구체적인 예로 다음을 언급한다. “사람들은 9/11의 책임을 전가할 어떤 대상을 절실하게 찾고 있었고, 마침 이슬람 종교 광신주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를 분명한 후보 중 하나로 등장했다. 잔혹한 만행에 분노하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슬람의 종교 광신주의’는 처음에는 ‘종교 광신주의’로, 나중에 그냥 ‘종교’로 축약되어 버렸다.”(McGrath, 2012: 10)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데닛의 경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종교로 환원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부정한다는 점이다. 즉 종교만이 사회문제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데닛 그 자신이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비극의 원인은 종교라고 결론짓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적인 광신도들의 정치적 의제는 종종 종교적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종교의 조직기반과 무조건적 충성을 독려하는 전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폭력적인 광신도들은 그 종교적 전통이 가르치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훌륭한 교의에 좀처럼 고무되거나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카에다와 하마스의 테러 행위는 여전히 이슬람교의 책임이고, 낙태 병원 폭파 사건은 여전히 기독교의 책임이고,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살인행위는 여전히 힌두교의 책임이다.”(Dennett, 2010: 387).

도킨스 또한 전쟁의 원인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종교”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종교 전쟁은 실제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끔찍할 만큼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무신론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전쟁은 경제적 탐욕, 정치적 야심, 윤리적이거나 인종적 편견, 깊은 슬픔이나 복수, 국가의 운명에 관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신념 등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전쟁의 동기로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자신의 종교가 유일하게 참된 종교이고, 모든 이단자들과 경쟁 종교의 추종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신의 병사들은 순교자의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명확히 약속하는 경전의 뒷받침을 받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다.”(Dawkins, 2007: 420)

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신의 증명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극단적 환원주의²²⁾는 그 사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극단적 환원주의가 접근법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환석은 라투르(B. Latour)를 인용하여 환원주의가 지니는 다음의 사실을 지적한다. “우선 라투르는 환원주의 그 자체는 피해야 할 악[惡]이나 고수해야 할 선[善]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상위’ 수준의 요소를 ‘하위’ 수준의 요소로 환원시킨다고 할 때, 사실은 전자에 못지않게 후자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 그는 1972년 겨울

22) 도킨스의 말로는 본인은 극단적 환원주의자가 아닌, ‘단계적 환원주의자’라고 말한다. “‘무슨 주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 설명방식에 가장 적합한 이름은 아마 ‘단계적 환원주의’가 될 것이다. …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 상상 속에만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물건을 ‘무턱대고 가장 작은’ 부분의 입장에서,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그 작은 부분들의 ‘총합’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단계적 환원주의자는 복잡한 전체를 설명할 때, 처음 단계에서 단지 한 단계 낮은 부품들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 부품들을 다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부품들의 단계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Dawkins, 2004: 40).

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책에서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것을 요약한다.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 모든 것은 오직 다른 모든 것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뿐이다.’”(김환석, 2011: 51-52, 12번 각주). 이와 같은 환원주의가 가진 이러한 현실 한계 때문인지 몰라도 『사회생물학 대논쟁』의 “후기: 다윈주의와 우발성의 유물론, 그리고 중층결정”에서 김세균 교수도 다음과 같은 말로 조심스럽게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려 보자. 먼저 우리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지만, 사회생물학, 더 나아가 사회생물학이 발전시킨 진화심리학 등의 중요한 연구 성과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진리와 일치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인간 행위를 ‘중층결정’²³⁾하는 전자아적인 규정 요소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발 현상’은 ‘환원주의적 통섭’을 비판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 생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비환원주의’의 입장 역시 옳은 접근법으로 보기 어렵다. 유전자적, 사회생물학적 규정들은 단지 ‘명석’을 까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 역시 인간 행위를 만들어내는 ‘중층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요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김세균, 2011: 285, 강조는 본 연구자).

결론적으로 말해 환원주의가 다(全部)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 맹신과 같은 극단적인 신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김세균 교수가 바로 앞의 글에서 괄호 안에서 써 넣은 문구처럼 “(그것들이 얼마나 진리와 일치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만 하는 것이다.

(3)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은 “경험과 측정에 근거한 증거를 사용하여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과정”을 의미한다.(www.ko.wikipedia.org, “과학적 방법”, “방법론적 자연주의” 참조).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극단적으로 ‘방법론적 무신론’의 경향을 띤다는 점이다.²⁴⁾ 앞에서 전술한 것처럼 과학주의는 극단적 합리(이성)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함으로써 종교를 아예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단지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한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극단적 환원주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방법론적 무신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무신론에 근거한 종교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자의 이해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종교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과학적 방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23) “‘중층결정’이란 환원 불가능한 요소들이 단지 ‘외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호반영과 상호침투를 통해 이미 ‘내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세균, 2011: 284, 10번 각주).

24) 다음은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의 견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과학적 방법’이라는 완전무결한 절차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차 많은 자료를 축적하여 진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노라고 주장-적어도 대중 설득용으로라도-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 질문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10년 전에 알려졌던 과학적 사실들은 대륙 이동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이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견해를 재구성해 왔노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나리오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특히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Gould, 2009: 230-231)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종교란 그 자체로 연구(논구)할 가치가 없게 된다. 둘째, 과학적 방법론은 자연현상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한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만 연구되어야만 한다. 종교를 연구하더라도 합리성(이성)의 범주에서만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⁵⁾

과학적 방법에 대한 도킨스의 신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어느 누구라도 택하기만 하면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 말이다.”(Dawkins, 2005: 57).

먼저 종교(신앙)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祈禱)²⁶⁾에 관한 스텐저의 견해일 것이다. 우주천문 물리학자인 스텐저는 기도는 과학적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영적’ 대상이라고 가정된다. 둘째, 기도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떻게 이 순간 누군가의 기도를 중단시켰다고, 또는 시험대상자가 세상 어디에서도 기도를 받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Stenger, 2010: 120-121)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텐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일 기도가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다면, 그것의 확실한 효과가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의미 있고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tenger, 2010: 131-132)

참고로 기도에 대한 스텐저의 견해와 다른 관점에서 해리스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리스의 경우, 영성(靈性)은 과학적 연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할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영성(주의력을 엄정하게 순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복을 배양하는가)과 윤리와의 관계는 명백히 증명되었다. 어떤 태도와 행동은 명상적 통찰에 도움이 되는 반면 어떤 태도와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는 그저 믿어야 될 하나의 제안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애’라는 실험실에서 시험되어야 할 가설이다.”(Harris, 2005: 230)

비록 ‘기도’와 ‘영성’으로 그 주제가 다르지만 초자연적 현상에 해당하는 두 주제(기도·영성)에 대해서 스텐저와 해리스는 각각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25) 과학적 방법에 대한 맥그라스의 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과학적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서, 모든 대답을 다 타당하다고 인정해야한다면, 혹은 합리성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준으로 옮겨야 하며, 증거와 논증 구성을 위한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McGrath, 2008: 114)

26) 물론 기도를 연구할 경우 기도가 효과가 없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골턴일 것이다. 도킨스의 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적을 다룬 재미있으면서 다소 딱하다 싶은 사례 연구가 하나 있다. 바로 대규모 기도 시험이다. 기도자들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곤 하는데 과연 그런 기도가 회복에 도움을 줄까?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은 기도가 효험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영국 전역의 교회에 모인 군중들 전부가 왕실의 건강을 비는 공개 기도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왕실 가족은 가까운 사람들의 기도만 받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 골턴은 조사를 했고, 통계학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어쩌면 그는 조롱하고 싶어서 그 연구를 했을지도 모른다.”(Dawkins, 2007: 99).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본 연구자의 짧은 견해로는 해리스와 스텐저의 각각 다른 전공분야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다. 해리스는 신경과학으로 뇌에 연구에 적극적이며, 뇌과학은 명상이나 기도 등은 뇌과학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스텐저는 우주천문물리학자로 물리적 현상 즉 자연현상에 대해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해리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양자 간의 차이는 전술(前述)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god)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넓게는 양자 모두 '급진적 진화론적 과학주의 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신이지만 말이다.(해리스의 신 [god]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신비주의로 불교에 매우 가까웠으며, 그 또한 불교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과학적 방법을 통한 영성의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무신론의 또 다른 주장은 바로 종교도 자연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한 가운데 순수하게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마 이에 대한 가장 극단적 주장이 바로 회의론자인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의 다음 주장일 것이다.

신 존재 물음을 보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의 기준이 무엇일까? 만일 신 존재를 경험적 증거로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 물음으로 만들고 싶다면, 신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세우고 신 존재의 시험 가능한 결론에 이르도록 해 줄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험과학에서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Shermer, 2008: 208)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 해리스는 “이 책의 목표는 과학의 맥락에서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있다.”(Harris, 2013b: 11)라고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The Moral Landscape)에서 선언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신의 존재의 증명, 종교의 존재의 증명도 과학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데닛은 “내가 지금 요청하는 바는, 종교- 종교 전체 -를 과학적 연구의 적절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상호 합의를 향해 다 함께 노력하자”(Dennett, 2010: 69-70)고 말한다. 스텐저의 경우, “이 책의 논제는 신이라는 초자연적 가설은 정립된 과학의 방법에 의해서 시험 가능하며, 검증 가능하고, 반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현상을 상상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은, 만일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수단으로 해서 관찰되기만 한다면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와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떤 실재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도 있다.”(Stenger, 2010: 43). “과학이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증거를 드러냈다는 주장을 평가하는 것은 내 과제의 일부일 뿐이다. 그 과제는 『과학은 신을 발견했는가?』에서 대부분 완료했다. 여기서 나의 주요 관심사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덜 친숙한 논증을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따를 과정은 가설 시험이라는 과학적 방법이다. 다시 말해, 나는 신의 존재를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 간주하고, 우리 주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 가설의 결론을 탐색할 수 것이다.”(Stenger, 2010: 28-29)

그렇다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스텐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신 가설은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확실하게 모순된다.”(Steger, 2010: 287)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대 신화의 신들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신을 포함한- 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인간이 고안해 낸 명백한 모형들이다.”(Stenger, 2010: 57)에 불과하다고 스텐저는 선언한다. 앤드류(E. Andrew)는 스텐저의 이러한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가설적 접근법은 신에게 적용 가능하다.
2. 가설적 접근법은 과학의 필수요소다.
3. 그러므로 모든 가설은 과학적 가설이다.
4. 그러므로 신 가설은 과학적 가설이다.
5. 그러므로 신 가설은 과학적 실험으로 시험될 수 있다.
6. 과학적 실험들로 수집된 자료에는 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7.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Andrew, 2012: 88)

[앞에서 언급한적 있는] 도킨스가 자신의 말로 표현한 ‘단계적 환원주의’라는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지적설계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적설계자 대신에 ‘눈먼 시계공’(Blind Watchmaker)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킨스가 말한 눈먼 시계공은 누구인가. 지적설계자가 아닌 ‘자연선택’이다. 진화의 요인은 자연선택이 바로 눈먼 시계공의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비록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전개하였지만, 모든 자연현상을 창조한 유일한 ‘시계공’은 맹목적인 물리학적 힘이다. …… 자연선택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지 않는다. 전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찰력도 없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 만약 자연선택이 자연의 시계공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이다.”(Dawkins, 2004: 28)²⁷⁾ 더 나아가 도킨스는 신을 밈(meme)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를 권한다.²⁸⁾ “신에 대한 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이 어떻게 밈 풀 속에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독립된 ‘돌연변이’를 여러 번 거쳐 발생했는지 모른다. 밈 풀 속에서 신의 밈이 나타내는 생존 가치는 그것이 갖는 강력한 심리적 매력의 결과다. 실존을 둘러싼 심원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의문에 그것

27) “나는 신 가설을 더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할 것이다. 즉 그것은 ‘우주와 우리를 포함하여 그 안의 모든 것을, 의도를 갖고 설계하고 창조한 초인적, 초자연적인 지성이 있다’라는 가설이다. 이 책은 그 가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를 옹호할 것이다. 즉 ‘무언가를 설계할 정도로 충분한 복잡성을 지닌 창조적 지성은 오직 확장되는 점진적 진화 과정의 최종 산물로 출현한 것이다.’라는 견해 말이다.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착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착각이다.”(Dawkins, 2007: 51-52).

28) 다음은 도킨스가 종교를 밈의 관점으로 이해한 예다. “신과 아브라함 사이의 성약을 읽을 때 나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개체로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비록 당시 아브라함은 99세로 창세기 수준으로는 헛병아리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신은 그 대신 다른 것을 약속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속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다. …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개체성이 아닌 종자의 미래를 선사 받았다, 신도 다윈주의를 끼고 있었던 모양이다.”(Dawkins, 2008: 325-326).

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해답을 준다. 그것은 현세의 불공정이 내세에서는 고쳐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불완전함은 ‘영원한 신의 팔’이 구원해 준다고 한다. 이는 마치 의사가 처방하는 위약(僞藥)과 같이 상상을 통해 그 효력을 갖는다. 이것이 신의 관념이 세대를 거쳐 사람의 뇌에 그렇게 쉽게 복사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환경 속에서, 신은 높은 생존 가치 또는 감염력을 가진 밈의 형태로만 실재한다.”(Dawkins, 2010: 324)

3 진화론적 신²⁹⁾

앞에서 살펴본 스텐저의 ‘신 가설’의 실패(The Failed Hypothesis)는 신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부재(不在)의 논리로 이어진다. 도킨스의 인격적인 지적설계자의 부재 또한 신의 부재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자연현상이나 우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자연과 우주에서 지적설계자를 찾지 못한 이들이 자연 현상과 우주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인격적인 신(God)이 아닌 다른 대체 신(god, 偶像)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대안으로 내세운 신(god)이 바로 ‘진화(론)적 신’인 것이다. 이들은 신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을 배제하고 자연선택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 현상과 우주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진화론적 발상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자연선택이라는 ‘진화(론)적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가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신경학자들이 뇌에서 ‘신 중추’(god center)를 발견했다면, 나를 비롯한 다윈주의 과학자들은 그 신 중추가 왜 진화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 중에 신 중추가 유전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가진 자들은 왜 그렇지 않은 경쟁자들보다 더 잘 생존했을까?”(Dennett, 2010: 124 재인용). 스테넬니(Kim Sterelny)도 도킨스에게서 ‘진화론적 신’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즉 신적인 능력을 가진 공학자가 없는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복잡한 적응체계들이 출현할 수 있는가? 도킨스에 따르면, 자연선택만이 이런 질문에 대한 가능한 대답이다. 자연선택은 복잡하고 상호 적응된 구조들을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적 기제이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들은 다른 기제들로는 거의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선택은 진화론적 설명에 있어서 독특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terelny, 2002: 31).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들의 사상 기저(思想 基底)에 진화론이 자리잡고 있음을 더욱 더 잘 보여준다. 히친스는 “진짜 ‘기적’은 지구상에서 생명의 출발을 알

29) 참고로, 진화주의의 주장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전제1: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거짓이다. 전제2: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사실이다. 결론: 기독교는 거짓이다.(Haarsma & Haarsma, 2012: 208);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신론을 비판하는 논리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첫째, 종교가 인간 집단이나 개인의 생존, 번식에 순기능을 한 결과 선택되어 진화했다는 시각이고(에드워드 윌슨, 데이비드 S. 윌슨), 둘째, 종교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발전시킨 인지 능력의 부산물이라는 시각이며(스티븐 제이 굴드, 리처드 르윈틴), 셋째, 언어나 반복된 행위에 의해 하나의 정신에 다른 정신으로(예컨대, 부모에서 자식에게) 전달되는 문화정보(이를 밈(meme)이라 한다)로서 종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리처드 도킨스, 대니얼 데닛)”(김상우, “역자의 말: 신이 뇌의 창조물이라면 ‘신의 뇌’는 ‘인간의 뇌’다” in Tiger and McGuire, 2012: 8-9).

린 최초의 박테리아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진화했다는 점이다.”(Hitchens, 2008: 129)고 말한다.

데닛은 “다윈적 사고의 논리는 단지 유전자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상가, 진화경제학자, 진화윤리학자, 그리고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리학이나 예술 분야의 다른 이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철학적 발견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Dennett, “다니엘 데닛의 후기” in Dawkins, 2005: 512)

스텝저도 “인간의 조상이 발견된다는 사실, 인간과 기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사이에서 DNA와 해부학적 구조의 연관성이 보인다는 사실, 의학 연구에서 사람을 대신해 동물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신이 인간을 유일무이한 생명 형태로 창조했다는 가설을 반증한다. 화석 기록, 과도적인 종의 존재, 진화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관찰된다는 사실은 신이 역사적으로 한 시점에 개별적인 생명 형태의 ‘종류’나 종을 창조한 이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가설을 반증한다. 반증되지만 않았다면, 그 가설대로였을지도 모른다.”(Stenger, 2010: 69). “리처드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의 부제를 ‘진화론은 세계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밝혀내는가’로 달았다(The Blind Watchmaker: Why the evidence of evolution reveals a universe without design) 그러나 다음 장들에서 보겠지만, 생물학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학적 관찰의 전 영역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세계는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Stenger, 2010: 95).

IV 새로운 무신론의 영향

그렇다면 새로운 무신론자인 이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무신론이 사회에 준 영향을 다음의 3가지로 본고에서는 집약하고자 한다. 새로운 무신론자의 호전적인 성향은 (1) 먼저 종교와 과학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 (2) 그리고 종교의 가치를 더욱 평가 절하시켰으며, (3)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결정론을 사회전반에 보급시킴으로써 ‘극단적’ 환원주의적 시각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종교와 과학의 관계 악화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종교에 대한 호전성은 매우 극단적 환원주의 시각에 입각해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은 종교라는 극단적 주장을 함으로써 종교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정책선언문과 고(故)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가 주장한 NOMA(Non-Overlapping Magisteria, 겹치지 않는 교도권)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 일로(一路)로 달려가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언 바버(Ian G. Barbour, 1923-)가 제시한 과학과 종교의 관계유형으로 볼 때 미국국립과학원의 정책선언문과 굴드의 NOMA는 “독립”(independence)의 관계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cGrath, 2013: 63-64) 왜냐하면 미국국립과학원의 정책선언은 명시적으로 자연적 원칙에 대해서만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故) 굴드의 “겹치지 않는 교도권”(NOMA) 모델도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방법론 및 서로 다른 해석 영역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종교, 이 양자 간의 상호 존중과 상호 인정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³⁰⁾

다음은 미국국립과학원의 정책선언문과 굴드의 NOMA의 내용이다. 이들이 표방(標榜)하고 있는 내용에서 과학과 종교, 양자 간 독립(獨立)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은 자연세계에 관해 알기 위한 한 방법이다. 과학은 자연적 원인을 통해 자연계를 설명할 뿐이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것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에 중립적인 질문이다(Stenger, 2010: 40 재인용;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eaching about Evolution and the Nature of Science")

나[굴드 Stephen Jay Gould]는 이 교도권들 간에 상호 존중 및 우호의 협약 즉 NOMA 해법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는다. NOMA는 그저 외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토대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다. 또한 NOMA는 양쪽에 똑같이 적용된다. 더 이상 종교가 과학의 교도권에서 사실적 결론의 본질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과학자 역시 세상의 경험적 본질에 관한 우월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진실에 관한 더 높은 해안을 지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호 겸손한 태도는 이토록 다양한 열망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McGrath, 2013: 63-64 재인용)

그런데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굴드의 NOMA 관계와 더불어 미국국립과학원의 정책선언문의 종교와 과학 간의 상호 독립관계에 관한 내용에 도전을 가한다. 즉 이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과학과 종교 양자 간의 독립관계를 부정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 간의 상호분리로 인해서 없어져야 할 종교가 여전히 존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양(兩) 영역은 상호 분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영역 또한 과학자들에게 있어 양보할 수 없는 관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샘 해리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주자에 해당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한다. “스티븐 제이 굴드가 많은 신자들은 신앙과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화해시키려는 희망에서 스티븐 제이 굴드의 ‘겹치지 않는 교도권’(NOMA, nonoverlapping magisteria)이라는 터무니없는 단어를 언급한다. 즉 과학과 종교를 적절히 해석하면 둘은 충돌할 수 없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과학이 물리적 우주를 다루는 작업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 반면, 종교는 정확하게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가? 비물리적 우주?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의미, 가치, 윤리, 선한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세속주의자들조차도 이런 행복의 근본 요소를 아무런 논의 없이 신학자들과 종교 변증자들에게 양보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종교가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다.”(Harris, 2008: 129). 종교와 과학, 이 양자 간의 관계에 있

30)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도 이러한 분위기 경험한 것 같다. “비교적 최근까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또는 (내가 스스로를 묘사하는 방식을 택하자면) 유신론자와 ‘반유신론자’ 사이의 논쟁은 대개 두 가지 가정을 암묵적으로 공유해 왔다. 첫째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유명한 표현인, 과학과 종교는 ‘겹치지 않는 교도권’(nonoverlapping magisteria)에 속한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과학과 이성 은 신이나 창조자의 존재를 실제로 반증할 수(부재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만큼 훌륭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가정이다.”(Hitchens, “추천사” in Stenger, 2010: 6).

어서 완충 지역을 제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과학과 종교 간의 평화의 무드를 치열한 상호 투쟁과 비방의 무드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我) 아니면 모두 적(敵)이라는 논리로 말이다.

2 더욱 더 평가 절하된 종교

..... 사후의 삶이 있을 이성적 가망성은 0에 가깝다. 하지만 과학은 최소한 우리에게, 어쩌다 잘못된 신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도 영원무궁토록 고문당하지 않을 것임을, 질투심 많은 신이 발명되기 전에 살다 죽은 수백만의 사람들도 평화롭게 실 것임을 보 증할 수 있다. 어느 무신론자의 티셔츠 문구대로 “웃으세요, 지옥은 없습니다.”(Stenger, 2010: 314)

극단적 환원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을 전적으로 종교에게 전가함은 물론이고, 종교가 비합리(비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성을 배제함으로써, 종교의 가치를 더욱 더 평가절하(平價切下)한다. 종교를 신화(神話)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취급한다. “여호와나 사탄의 문자적 실존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증거는, 제우스를 산 속 보좌에 앉히고 포세이돈으로 하여금 계속 바다를 휘어잡게 만들던 증거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Harris, 2005: 20)라고 본다. “사실 고대 신화의 신들-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신을 포함한-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인간이 고안해 낸 명백한 모형들이다.”(Stenger, 2010: 57).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선택 이론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대체 이론들을 다루어 왔다. 그런데 아직 가장 오래된 이론이 남아 있다. 그것은 의식을 가진 설계자가 생명을 창조했다거나 또는 그 진화를 이루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 속에 들어 있는 특정한 관점, 예를 들어 「창세기」 속에 적혀 있는 한 가지 이론(혹은 두 가지 이론일지도 모르지만)을 분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거의 모든 민족들이 저마다의 창조 신화를 발달시켜 왔으며 「창세기」의 신화는 중동지방 유목민의 특정 부족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가 개미의 배설물에서 창조되었다는 서아프리카 지방의 한 부족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신화들은 모든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존재의 사려 깊은 의도에 기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Dawkins, 2004: 509)

도킨스는 ‘really’ 또는 ‘reality’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독교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주장하는 것을 그의 저서인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The Magic of Reality: How we know what's really true)에서 확인할 수 있다(Dawkins, 2012)(개인적으로 이 책이 도킨스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된다). 이 책에서 도킨스는 신화와 과학을 대조하면서 글쓰기를 전개한다. 도킨스는 절묘하게 신화의 범주에 성경(의 내용)을 삽입하고, 과학의 범주에 진화론을 교묘히 집어넣으므로 진화론은 really(or real)한 과학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구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주장한다. 1장 What is reality? What is magic?에서 과학은 현실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마법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한 복잡한 유기체를 다른 복잡한 유기체로 (동화에서처럼) 단번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지만, 복잡한 유기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마법처럼 보이는 현실의 존재를 자연선택적 진화론과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호박

⇒ 마차 ⇒ 개구리 ⇒ 왕자로 바뀌지 않지만(이처럼 바뀌는 것은 마법에 해당한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바뀌는 것은 reality인 것이다). 7장. What is a rainbow?에서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方舟)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의 다른 버전 즉 우트나피쉬팀이라는 노인을 단지 노아로 바꾸어서 다시 읊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그렇게 함으로써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신화의 내용으로 치부되게 한다) 그리고 The real magic of the rainbow에서는 무지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기술한다. 8장에서는 When and How did everything begin? 창조신화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런 후 How did everything begin really?에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추가한다. 9장 Are we alone?에서는 ‘천국의 문’(Heaven's Gate)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Is there really life on other planets?라고 묻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골디락스 지대’와 같은 과학적 설명을 덧붙여서 기술한다. 12장 What is a miracle?에서는 오늘의 기적에 해당하는 것이 내일에는 실현가능한 기술(技術)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설명’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새로운 무신론자는 종교(특히 기독교)의 가치를 신화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

도킨스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한 경우를 셔머(Michael Shermer)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회의론자인 그는 자신의 책 『믿음의 탄생』(The Believing Brain)에서 도킨스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 셔머의 책의 1부 “믿음의 여정”(Shermer, 2012: 21-86)의 기술 순서를 살펴보면 ‘1장. 미스터 다르피노(Emilio Chick D'Arpino, 저자인 Shermer는 자신의 지인으로 소개한다)의 딜레마’를 기술한다. ‘2장. 콜린스 박사(『신의 언어』를 쓴 인간계놈프로젝트의 이끈 개신교로 개종한 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의 개종’을 기술하고, 마지막 ‘3장. 회의론자의 여정’(여기서 셔머 자신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회의론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을 기술하고 있다. 1장의 내용은 누구나 봐도 미신에 가까운 미스터 다르피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다. 3장은 저자 셔머(Michael Shermer) 자신의 이야기로 그가 기독교에서 회의론자로의 바뀐 과정을 다룬 일종의 개종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신(1장)과 회의론(3장) 그것도 기독교에서 회의론자로 개종한 셔머 자신의 이야기 사이에,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박사의 기독교로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2장의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제 3자의 시각에서 볼 때 1장. ‘미신’(迷信: 다르피노의 사례) ⇒ 2장. ‘기독교’(基督教: 콜린스 박사의 기독교로의 개종 사례) ⇒ 3장 ‘회의론자’(懷疑論者: 셔머 자신의 회의론자로의 개종 사례)의 순서에 따라서 책의 제목처럼 『믿음의 탄생』이 전개(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에게 믿음은 미신 ⇒ 기독교(종교) ⇒ 회의론(무신론)으로 꼭 가야만이 믿음이 발전하는 것이고 건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콜린스 박사의 기독교로의 개종이 기독교에서 회의론자로의 셔머의 개종보다 더 못하다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기독교에 비해 회의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기독교 믿음은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1장의 ‘미스터 다르피노’가 지니고 있는 미신에 더 가까운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신론자의 종교에 대한 평가절하는 성경 텍스트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과 손을 잡음과 동시에 그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심하게 다음과 같은 무리한 요구까지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어떻게 정리하고 수정해야 할까?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그냥 삭제해야 한다.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리 봐도 성마른 독재자가 숨을 몰아쉬며 길게 헛기침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은 윤리적 건전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금지 조치 또한 사라져야 한다.”(Hitchens, 2013: 265-266; Vanity Fair, [April 2010] 참조).

3 환원적 사고의 확산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형식적으로 유전자 결정론을 부정한다. 먼저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의 “2.4 ‘유전자는 우리가 아니다’”(Dawkins, 2004: 197-207)에서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도킨스의 이러한 견해는 "Don't Panic: Take comfort, It's not all in the genes," Daily Telegraph, [July 17, 1993]에 실림). 동성애자 유전자에 대한 견해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를 ‘위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단지 보여주기만 할 뿐이라면, 그 가능성의 값은 거의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유전자는 결코 결정론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Dawkins, 2004: 201).

데닛에게서도 이와 연관될 만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생물학자들은 종종 ‘유전자 중심주의’라는 비난을 듣는다. 생물학의 모든 것을 유전자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생물학자들은 유전자에 너무 심취하기도 한다. 어머니 자연은 유전자 중심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자연선택 과정 자체에서 모든 가치 있는 정보가 ‘생식 계열을 통해(유전자를 통해)’ 이동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반대로 만일 외부 세계에서의 연속성이 그 짐을 확실히 덜어 줄 수 있다면 어머니 자연은 그에 만족한다. 그렇게 하면 유전체(게놈)의 짐을 덜 수 있다.”(Dennett, 2010: 178)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유전자 결정론을 이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주장들은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환원적 사고로 확장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다.³¹⁾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확장된 표현형』, 『에덴 (밖)의 강』을 통해서 마치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인상을 줌으로써 유전자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극단적 환원주의적 논리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게 하였다.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범죄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생리와 유전, 그리고 환경 조건들을 비난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런 결함을 제공한 생리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법정의 청문회라는 것은 베이질 폴티(Basil Fawlti)가 고장 난 자동차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Brockman, ed., 2008: 90). 메릴 윈 데이비스(Merryl Wyn Davies)도 도킨스에게서 이러한 점을 발견

31) 섉스톤은 도킨스의 주장이 환원주의와 비슷하다고 한다. “진화의 모든 현상이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즉 모든 설명이 유전자에 근거한 설명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환원주의도 비슷하다. ‘유전자가 모든 생물의 유일한 결정 프로그램이다. 즉 생명을 영위해 나가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생존하고 번식하려고 하는 유전자의 명령이다.’”(Sexton, 2002: 61).

하고 있다.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도킨스가 고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상승 기류를 탄 듯한 현기증 나는 수사법’을 반복하면서 유전자론을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Sexton, 2002: 8 재인용)

특히 유전자 결정론은 사회생물학적 주장에서 쉽게 발견할(Alcock, 2013: 63-85, “3장 유전자” 참조) 수 있는데 그 주장의 기본패턴에 대해서 정상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표현형적(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형질 X를 유발하는 유전자(또는 유전자적 근거)가 있다.’는 식이다. 예컨대 외국인 혐오증 유전자, 아이 돌보기 선호 유전자, 강간 유전자 등의 자연에 의해 선택된 결과 인간사회에 그런 것에 해당하는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양식이 존재한다는 식이다. 특정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로 발현하는 가정에는 수많은 발생제약이 있다. 유전자와 형질 간에도 일대일(一對一)보다는 다대일, 다대다 또는 일대다 식의 복잡한 관계가 더 많다. 따라서 ‘X를 유발하는 유전자’라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입증되지 않은 두 가지 전제가 숨어 있다. 첫째는 모든 또는 대다수 생물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있다. 둘째, 그러한 특성의 발현에는 유전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정상모, 2011: 373-374).

유전자와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환원주의적 사고는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닌다. 유전자 결정론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정상모의 글을 인용한다. “…… 유전자결정론은 단순히 오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강간을 동물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적응의 한 방식이라고 보는 배러시(D. Barash)의 설명이 좋은 예다. 그는 강간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진화해왔다고 주장한다. 다른 수컷들과의 짝짓기 경쟁에서 패한 열등한 개체는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 형질도 도태된다. 그런데 비록 열등하지만 강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닌 개체는 자손을 남길 수 있다. 배러시의 말대로 강간 유전자가 진정 존재한다면, 우리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 강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간 유전자가 따로 없고 그저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적 재생산 유전자가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그런 식으로 발현되었다면, 유전자 치료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조치를 통해 강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강간 유전자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유전자 결정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과학적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인종청소라는 엄청난 사회적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정상모, 2011: 375). 극단적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환원주의적 사고에 사회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는 이러한 지적은 깊은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³²⁾

32) ‘후성유전학’(epigenetics)자인 립톤(Bruce H. Lipton)은 자신의 저서인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The Biology of Belief)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유방암과 관련된 BRCA1 유전자와 BRCA2 유전자가 발견되자 미디어가 법석을 떨었지만, 미디어는 95%의 유방암 환자들이 유전자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다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암 환자의 경우 종양은 결함 있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Lipton, 2011: 90-91); 알바 노에(Alva Noe)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리처드 도킨스가 제안한 것처럼, 유전자 자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후손에게

V 나가며

앞서 전술한 것처럼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킨스와 새로운 무신론자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도킨스는 진화론의 좌장(座長)격인 인물임을 잘 알려져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상식적인 물음으로 출발했다가 상식적인 답변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저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 신(god)이 있는데 그 신은 바로 ‘급진적 진화론적 과학주의 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록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신은 하나의 우상(god)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는 명칭에 있어서 이 ‘새로운’(new)이라는 말은 오늘날 새로운 무신론자들과 과거의 무신론자들을 비교해 볼 때에 이들의 주장이 매우 극단적이고 호전적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과거 무신론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수식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극단적 호전적 주장으로 인해서 (1) 오늘날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더욱 더 악화되었으며, (2) 종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평가절하(平價切下) 되었으며, (3) 더 나아가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ation)로 대표되는 환원주의적 시각이 이 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무신론은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성을 더욱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추락한 기독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극단적 환원주의’에 입각해서 종교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사회문제(社會問題)들에 대한 제 원인(諸原因)들에 대한 재고(再考)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선 이러한 제 주제(諸主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신앙 공동체(해석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악화된 종교와 과학의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들 각자의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의 확보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종교와 과학, 양자간의 관계에 항상 불협화음이 더욱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양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공동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서는 해석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과학과 종교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을 통한 친밀한 협업(親密한 協業, close collaboration)이 요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두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다. 하나는 저술가이자 언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특성을 물려주는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일정한 유전자가 어떤 개체군 안에서 전파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즉 어떤 유기체가 환경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Noe, 2009: 79).

인인 톰 울프(Tom Wolfe)와 인지신경과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Gazzaniga)가 과학잡지 「시드」(Seed)의 주선으로 가진 토론에서 말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웬델 베리(Wendell Berry)가 환경보호론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한 것에 대한 지적의 내용이다. 비록 베리의 지적은 환경보호론자들에 대한 지적이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비난한 자들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다. 다음의 인용문의 내용들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용하고자 한다. 먼저 울프와 가자니가 간의 대화의 내용이다.

울 프: …… 한동안 예일대학에 있던 뇌파생리학자 호세 델가도(Jose Delgado)를 기억하시죠?

가자니가: 네 물론이죠.

울 프: 델가도는 투우장에 작업복을 입고 서서는 머리에 전기 바늘을 꽂은 소가 자신을 쫓아오게 만들죠. 손에는 무선 송신기를 들고 있습니다. 소는 저쪽 벽만큼 떨어져 있고요. 단추를 누르자 ‘다다다다’ 달려오던 소가 그대로 멈추죠.

가자니가: 그랬죠.

울 프: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도 신경과학자인데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뇌는 워낙 복잡해서 이해는커녕 상상하기도 어렵다. 인간은 이 분야의 연구에서 몇 킬로미터를 전진한 것이 아니다. 몇 센티미터를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나머지는 다 허구다” 오늘날 탁월한 이론가들, 예를 들어 E. O. 윌슨(E. O. Wilson),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댄 데넷(Dan Dennett) 같은 사람들은 아마 신경심리학에 관한 한 대학원 2학년 학생 정도의 지식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들의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요. …… 미안한 얘기지만 도킨스는 지금 진화에 관한 PR맨에 불과하고요. ……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이 분야의 논의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Wolfe and Gazzaniga, 2012: 324-325).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다음을 지적한다.³³⁾

[비기독교인 환경보호론자들은] 비판에 필요한 첫 번째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 성서를 비판하려면 비판에 앞서 성서를 읽어야 한다. …… 그리고 나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서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고 사려 깊게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Berry, 2004: 19)

33) 웬델 베리(Wendell Berry)와 비슷한 지적은 옥스퍼드의 수학자인 존 레녹스(John C. Lennox)가 신의 존재를 부정한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에게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nnox(2013: 76-81, Section 2, “스티븐 호킹은 성경을 진지하게 검토했는가?”).

참고문헌

- 김기석 (2009). 『종의 기원 VS. 신의 기원』. 서울: 동연.
- 김동광·김세균·최재천 (2011). 『사회생물학 대논쟁』. 서울: 이음.
- 김세균 (2011). “후기: 다윈주의와 우발성의 유물론, 그리고 중층결정.” 『사회생물학 대논쟁』. 서울: 이음. 273-285.
- 김윤성 (2009). “종교와 과학의 논의 행복하게 엮어졌습니다.”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85-105.
- 김환석 (2011). “생물학적 환원주의와 사회학적 환원주의를 넘어서.” 『사회생물학 대논쟁』. 서울: 이음. 31-64.
- 박일준 (2008). “도킨스의 종교비판에 대한 종교철학적 고찰: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5(2). 297-327.
- 신재식·김윤성·장대익 (2009).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 장대익 (2009a). 『다윈의 식탁』. 파주: 김영사.
- _____ (2009b). “종교는 말살해야 할 정신의 ‘바이러스’일지도 모릅니다.”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141-169.
- 정상모 (2011). “생물철학.” 강신의 외.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창비. 362-379.
- 정진우 (2012). “과학주의 무신론에 대한 과학적 유신론 비판연구: R. Dawkins와 A. McGrath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최 석 (2013). “과학적 무신론의 종교비판과 과학신학의 응답의 상보적 대화: 리처드 도킨스(R. Dawkins)와 알리스터 맥그라스(A. E. McGrath)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신학대학원.
-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2010). 『신과 다윈의 시대』. 파주: 세계사.
- Alcock, J. (2001). *The Triumph of Sociobiology*. 김산하·최재천 공역 (2013). 『다윈 에드워드 윌슨과 사회생물학의 승리』. 서울: 동아아시아. 63-85
- Andrew, E. (2009). *Who Made God?* 홍종락 역 (2012). 『신을 탐(探)하다』. 복있는사람.
- Berry, W. (1993). *Sex, Economy, Freedom, and Community*. 문채원·정혜정 공역(2004). 『희망의 뿌리』. 서울: 산해.
- Brockman, J. (2006). *What Is Your Dangerous Idea*. 이기영 역 (2008). 『위험한 생각들』. 서울: 갤러온.
- Brouwer, Douglas J. (1999). *Remembering the Faith: What Christians Believe* Grand Rapids, MI: Eerdmans. 이종태 역 (2001).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서울: 복있는사람들.
- Dawkins, R. (2011). *The Magic of Reality*. 김명남 역 (2012). 『현실 그 가슴뛰는 마법』. 김영사
- _____ (2006). *The Selfish Gene*. 30th Anniversary Edition. 홍영남·이상임 공역 (2010). 『이기적 유전자』. 진면개정판.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2006). *The God Delusion*. 이한음 역 (2007). 『만들어진 신』. 김영사.
- _____ (2003). *A Devil's Chaplain*. 이한음 역 (2005). 『악마의 사도』. 바다출판사.
- _____ (1999). *The Extended Phenotype*. 홍영남 역 (2005). 『확장된 표현형』. 을유문화사.
- _____ (1995). *River out of Eden*. 이용철 역 (1995). 『에덴 밖의 강』. 동아출판사. 이 책은 동일 저자에 의해 『에덴의 강』이라는 새 제목으로 사이언스북스(2005)에서 출판됨.
- _____ (1991). *The Blind Watchmaker*. 이용철 역 (2004). 『눈먼 시계공』. 사이언스북스.
- Dennett, D. (2006). *Breaking The Spell*. 김한영 역 (2010). 『주문을 깨다』. 파주: 동녘사이언스.
- Eagleton, T. (2009). *Reason, Faith and Revolution*. 강주현 역 (2010).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서울: 모멘토.
- Flew, A. (2007). *There is a God*. 홍종락 역 (2011). 『존재하는 신』. 서울: 청림출판사.
- Forster, G. (2012). *The Joy of Calvinism*. 윤석인 역 (2013). 『칼빈주의 기쁨』. 부흥과개혁사
- Giroux, H. A. (2008). *Against the Terror of Neoliberalism*. 변종현 역 (2009).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 고양: 인간사랑.
- Gould, S. J. (1977). *Ever Since Darwin..* 홍옥화·홍동선 공역 (2009). 『다윈 이후』. 서울: 사이언스북스.
-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최용준 역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특히 139-188.
- Harris, S. (2012). *Free Will*. 배 현 역 (2013a). 『자유 의지는 없다』. 서울: 시공사.
- _____ (2010). *The Moral Landscape*. 강명신 역 (2013b).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서울: 시공사.
- _____ (2008). *Letter to a Christian Nation*. 박상준 역 (2008). 『기독교국가에게 보내는 편지』. 파주:

- 동넉사이언스.
 _____ (2004). *The End of Faith*. 김원옥 역 (2005). 『종교의 종말』. 서울: 한인.
- Haarsma, D. B. & L. D. Haarsma, (2011). *Origins: Christian perspectives on creation, evolution, and intelligent design*. 한국기독교과학자회 역 (2012). 『오리진』. 서울: IVP.
- Hagerty, B. B. (2009). *Fingerprint of God*. Riverhead Books. 홍지수 역 (2013). 『신의 흔적을 찾아서』. 파주: 김영사.
- Hahn, S. (2007). *Reasons to Believe*. The Doubleday Broadway Publishing. 이창훈 역 (2009) 『나는 왜 믿는가: 가톨릭, 희망의 이유를 말하다』. 파주: 살림.
- Haight, J. (1995). *Science & Religion*. Paulist Press. 구자현 역 (2003).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서울: 코기토.
- Hitchens, C. (2011). *Arguably: Essays*. 김승욱 역 (2013). 『논쟁』. 파주: 알마. 257-268.
- _____ (2007). *God is Not Great*. 김승욱 역 (2008). 『신은 위대하지 않다』. 파주: 알마.
- _____ (2001). *Letters to a Young Contrarian*. 차백만 역 (2012). 『젊은 회의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 미래의창.
- _____ (1995). *The Missionary Position*. 김정환 역 (2002). 『자비를 팔다』. 서울: 모멘토.
- Hobson, Theo (2009). *Faith*. 안기순 역. (2013). 『믿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파이가.
- Idleman, K. (2013). *gods at War*. 배용준 역 (2013). 『거짓신들의 전쟁』. 서울: 규장.
- Keller, T. (2008). *The Reason of God*. 권기대 역 (2010). 『살아있는 신』. 서울: 베가북스.
- Lennox, J. C. (2011). *God and Stephens Hawking*. 원수영 역 (2013). 『우주탄생의 비밀 빅뱅인가 창조인가』. 고양: 프리월. 76-81.
- Lipton, B. H. (2008). *The Biology of Belief: Unleashing the power of consciousness matter & miracles*. 이창희 역 (2011).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서울: 두레.
- Lohfink, G. (2008). *Welche Argumente hat der neue Atheismus?* 이영덕 역 (2012). 『오늘날의 무신론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McGrath, A. E. (2010). *Science & Religion: A New Introduction*. 2nd edn. Blackwell Publishers. 정성화-김주현 공역 (2013). 『과학과 종교 과연 무엇이 다른가?』. 서울: 린.
- _____ (2005). *The Dawkin's God*. 김태완 역 (2008). 『도킨스의 신』. 서울: SFC.
- _____ (2004). *The Science of God*. 박세혁 역 (2011). 『과학신학』. 서울: IVP.
- _____ (2004). *Why God Won't Go Away*. 신기현 역 (2012). 『신 없는 사람들』. IVP.
- _____ & J. McGrath (2007). *The Dawkins Delusion?* 전성미 역 (2008). 『도킨스의 망상』. 파주: 살림.
- Newbigin, L. (1986).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홍병룡 역 (2005).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서울: IVP.
- Noe, A. (2009). *Out of Our Heads*. Brockman. 김미선 역 (2009). 『뇌과학의 함정』. 갤리온.
- Robertson, D. (2007). *The Dawkins Letters*. 전현주 역 (2008). 『스스로 있는 신』. 사랑플러스.
- Sexton, Ed (2001). *Dawkins and The Selfish Gene*. 이용철 역 (2002). 『도킨스와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이제이북스.
- Shermer, M. (2006). *Why Darwin Matters*. 류 운 역 (2008). 『왜 다윈이 중요한가』. 바다출판사.
- _____ (2011). *The Believing Brain*. 김소희 역 (2012). 『믿음의 탄생』. 서울: 지식갤러리.
- Stenger, V. J. (2008). *God: The Failed Hypothesis*. 김미선 역 (2010). 『물리학의 세계에 신의 공간은 없다』. 서울: 서커스.
- Sterelny, K. (2001). *Dawkins VS. Gould*. 장대익 역 (2002). 『유전자와 생명의 역사』. 몸과마음.
- Tiger, L. & M. McGuire (2010). *God's Brain*. 김상우 역 (2012). 『신의 뇌』. 와이즈북.
- Wolfe, T. & M. Gazzaniga (2010). "Free Will". in *Science Is Culture*. 이창희 역 (2013). "17장 자유의지." 『사이언스이즈컬처』. 서울: 동아시아. 322-338.